

희석제 취급 중 화재 발생



재해개요

'2025.11.00(금) 13:16경, 경기도 김포시 소재 (주)OOO 사업장 내 공장동에서, 건설현장의 가설 폴딩도어에 붙은 광고용 스티커 제거를 위해 희석제(신너)를 붓던 중,

주변의 용접 불티가 비산되어 희석제가 점화되고 재해자가 들고 있던 희석제 캔에 전파되어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함



1

발생원인

화재위험 작업 장소 내 가연물 취급 작업 실시

- 화재위험 작업 장소 내에서 인화성 액체인 도료용 희석제가 존재 및 사용되는 상태였음
-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인화성 물질인 도료용 희석제를 사용함으로써, 용접 불티가 비산되어 화재 발생

화재위험 작업 관리 및 안전교육 미흡

- 화재위험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승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
- 화재위험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외국인임에도, 언어적 장벽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

2

예방대책

① 화재위험 작업 장소내 가연물 제거 및 작업공간 분리

- 화재위험 작업 장소 내 가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, 존재 시 제거해야 함
- 위험물 사용 작업은 화기 작업과 장소를 분리해야 함

② 화재위험 작업 관리 체계 수립 및 이행 필요

- 화재위험 작업 전 계획서를 작성하고, 계획대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후 작업을 승인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
-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국어로 번역된 교안 등을 활용하여 교육하여 화재 위험성에 대해 상기시켜야 함

※ 본 OPS는 등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